

잇단 '쓸쓸한 죽음'... 그들 곁엔 반려견만

설 명절에도 찾은 이 없어...광주 60대男 숨진 지 열흘만에 발견 60대女 좌변기 앉은 채 숨져...혹한에도 도시가스료 고작1500원 영암서 홀로 살던 50대는 집 마당에서...수도검침원이 신고

광주·전남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발견된 이들의 시신은 설 명절 기간에도 찾은 이가 없어 방치됐으며, 그 곁엔 반려견만이 지키고 있었다. 이들에게 가족이나 이웃, 지치단체의 복지 시스템은 너무 멀게 있었다.

21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55분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한 아파트에 혼자 살던 A(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마을반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마을반장은 지난 10일 동파 된 수도배관이 염려돼 A씨 집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A씨의 집을 한 차례 방문했

지만 집안에 인격적이거나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신체 일부가 기르던 개에 의해 훼손돼 있었다. 또 집 안 곳곳에는 소주병이 널린 상태였다.

A씨는 미혼으로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 슬로 외로움을 달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체장애 6급과 당뇨 등 각종 지병도 앓고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가 지난달 8일 기초수급을 연장하기 위해 진단서를 가지고 관천동 주민센터를 찾은 것이 복지담당 공무원이 기억하고 있는 A씨의 마지막 모습이다.

관천동에만 280여명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지만 복지담당은 단 4명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던 김씨의 관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광주시 서구 양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김모(여·66)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개방해 들어갔지만 김씨는 오래전 화장실 좌변기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 숨진 김씨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앙상한 몸골로 발견됐다.

고인은 수십 년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하나뿐인 아들의 입원비를 꾸준히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웃과도 별다른 소통 없이 혼자 생활해 왔으며, 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 몰티즈를 가슴에 품고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게 이웃들의 말이다. 이웃들은 또 김씨를 100

원짜리 동전 하나도 끄떡이 생각하는 근검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김씨는 혹한이었던 지난달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만 1500원에 불과했다. 보일러 가동은 물론 집안에서 음식조리도 거의 하지 않는 등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에는 영암에서도 혼자 살고 있던 50대 남성이 자택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영암군 신북면 한 주택 마당에 쓰러져 숨진 B(51)씨를 수도검침원이 발견해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1주일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B씨는 오랜 기간 홀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다소 부패한 상태였다. B씨는 폐질환을 앓아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했으며 알코올중독 증상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보안관찰 신고 거부 '무죄'

법원 "관찰 기간 갱신 위법"



강 전 센터장은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년 12월 다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주 형태나 직업, 활동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의무 부과와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면, 범죄주의의 원칙상 기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센터장은 선고 직후 "범죄주의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판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스며들게 하는 데에 오늘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85년 전남대학교 의대 재학 중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56·의사)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1심에서 보안관찰 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적은 데도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씨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센터장은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대법 "고객 동의없는 대출 가산금리 일방 인상은 사기죄"

은행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처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금리 인상은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대출채무자의 동의나 개별통지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무연고 사망자 5년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

광주·전남 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5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1인 가구수가 20년 전에 비해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3년 3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79명으로 2.14배나 늘었다.

광주는 2013년 12명, 2014년 14명, 2015년 18명, 2016년 21명, 2017년 27명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남은 2013년 25명, 2014년 56명, 2015년 30명, 2016년 41명, 2017년 52명 등 증가 추세다.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은 총복이 154.2%로 가장 높았고 대구 146.8%, 부산 128.3%, 광주 125%, 전남 108%, 경북 1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64명을 시작으로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46명, 지난해 835명 등 지난 5년간 79.9%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은 140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57만7000명(41.04%)에 지나지 않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딸의 초등학교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이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

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

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자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환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